1. 식 체

- 원인 곡류사료를 과도하게 섭취 혹은 변경 시 발생되며, 장기간 다량으로 급여하면 발생함. 비육초기 농후사료 급여량의 증가 시 발생률이 높고 여름, 가을철 주의해야 함.
- 증상 섭취량 감소, 반추활동 감소, 귀, 뿔, 콧등이 차고, 복부가 팽대됨. 탈수와 악취성 설사 혹은 딱딱한 변비 발생.
- 예방 배합사료 급여는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며, 조사료 급여량은 최소 10% 이상 유지. 발생 징후 시 조사료 위주로 급여.
- 치료 증상이 심할 경우 전해질 또는 생리식염수를 투여하고, 루멕스(반추 위액) 또는 중조를 100g/두/ 일 이상 급여가 필요

2. 천 공

- 원인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, 주로 분만 후 발생률이 높고 농 후 사료 과다급여, 과식 및 스 트레스에 의한 발생으로 알려져 있음.
- 증상 섭취량 감소, 복통
- 예방 주요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주고,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.
- 치료 외과적 시술(치료효과가 낮아 예방이 중요)

3. 요결석증

- 원인
 주로 거세우에 많이 발생
 요로를 무기염류가 막아 배뇨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칼슘과 인의 비율불균형(인의 과다급여),
 규산 함량이 높은 조사료, 석회함량이 높은 물, 조기 거세에 의한 요도형성 과 발유부진, 비타민
 A 결핍에 의한 요도 상피세포의 탈락 등 원인 이 다양함.
- 증상 생식기 털에 이슬모양의 결석이 붙어 있고, 우사 바닥이 건조하면 의심해야 함. 증상이 심해지면, 불안, 식욕부진, 잦은 배뇨와 배뇨량이 적고, 아랫배 차는 등의 증상을 보임. 땀을 흘리며 호흡이 가쁨.
- 예방 칼슘과 인의 비율은 1.5 : 1 이상을 유지하고, 충분한 음수를 유도 하기 위해 음수관리(온도, 성분, 청소 등)를 해야 함. 결석예방을 위해 염화암모늄(20g/일/두, 4회/월, 출하 3개월전 급여중지)과 비 타민 A를 급여 함.
- 치료 : 외과적 시술(요도 절개), 치료효과 낮음.

4. 과산증

- 원인 농후사료 과다섭취로 반추위 내 과도한 젖산이 생성되고, 이로 인해 위내 pH 저하가 발생. 젖산균과 젖산생성 증가는 반추위 내 삼 투압을 증가시켜 몸속의 체액이 반추위 내 유입되어 탈 수와 설사를 일으키고, 정상적인 반추위 미생물 균형을 파괴.
- 증상 식욕감퇴, 설사(달콤한 향), 탈수증상 및 호흡과 맥박이 빨라짐. 이를 갈고, 신음소리를 냄.
- 예방
 조사료 함량을 30% 이상 급여하고, 완충제(중조)를 첨가 해주는 것 이 좋음.
 조사료 비율이 10% 미만일 경우 완충제(중조) 첨가량을 높이고, 단기간 내 출하하여야 함.
- 치료 배합사료 급여를 중단하고, 양질의 조사료 위주로 급여. 완충제 및 반추위 기능강화제(신선한 위액) 등을 급여하고, 필요 시 테라마 이신(젖산균 제거)을 급여한다. 증상이 심각하면 전해질 및 비타민 제도 투여함.

5. 고창증

- 원인 배합사료 과급과 조사료 부족으로 발생. 포말성이 주이나 비포말성 의 경우 만성 호흡기 질병이나 제 2위 창상성 심낭염의 경우 많음.
- 증상 반추활동이 없고 제 1위내 가스로 초기에는 좌측 상복부, 말기에는 복부 전체가 팽대. 호흡이 가쁨. 급성에서는 횡격막 압박에 의한 호 흡 장애, 순환 장애로 비틀거리는 상태를 지나 폐사하나 만성에서는 죽지 않으나 식욕저하나 발육 정체.
- 예방
 우선 농후사료 다급과 일시적으로 많이 급여해서는 안되며 조사료는 충분하게 공급.
 음수 또한 섭취가 용이하고 깨끗한 것으로 유지. 생균제나 계면활성제를 사료 내 첨가해서 급여.
- 치료
 가벼운 증상은 운동이나 복부의 연속적인 마사지도 유효하나 급성 고창증(호흡곤란 등)은 제 1
 위에 외경 약 5mm의 투관침을 이용하 여 가스를 제거하거나 위 카테타로 위 세척과 동시에 가스를 제거함.
 포말성 고창증의 경우에는 제포제로서 유지(광물성, 식물성) 를 200~400mL를 투여하거나 합성

포말성 고장증의 경우에는 제포제로서 유지(광물성. 식물성) 를 200~400mL를 투여하거나 합성 계면활성제인 실리콘제. 나무 조 각 등을 입에 재갈을 물리면 제포 작용을 하는 침 분비를 촉진. 비 육을 하면서 좀처럼 기립하지 않는 소에 대해서는 기립 보조.

6. 간 농양

- 워인
 - 괴사간균이 제 1위 염증부나 창상부에 감염하여 간문맥계(소화관과 간을 연결하는 정맥)을 지나 간에 병소 형성.
 - 괴사간균은 지간 부관의 원인으로 되며 괴사간균에 유래하는 괴사성. 농양성의 질환 을 총칭해서 괴사성 간균증. 배합사료의 과급의 비육우에 다발.
- 증상

진단이 어렵고 간에 농양이 형성되어 식욕 부진, 영양불량, 황달, 빈혈을 일으킴. 농양 자체는 도축 시에 발견되며 간은 폐기하는 데 인접하는 횡격막의 염증을 유발.

- 예방
 - 육성기부터 비육기에의 이행시기에는 급격한 배합사료의 증량급여 를 피하고 조사료는 물리적특성을 가진 길이로 잘라 충분하게 급여.
 - 병원균이기 때문에 우사나 우체의 위생적인 관리.
- 치료
 -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사실상 어려움.
 - 초기에 발견 시 간기능 개선제(비타민 제제, 타우린 등)를 급여하고, 배합사료 급여량 줄임.

7. 제4위 전위

- 원인 제4위의 소화기능 이상에 의해 가스가 발생하여 위가 확장해서 원래 위치로부터 좌측 또는 우 측으로 이동.
- 증상 갑작스런 식욕 감퇴 또는 정지, 반추정지, 안구 함몰, 우측 전위 에서는 고통, 쇼크 증상. 진단은 늑골의 타진 시 금속음 들림.
- 예방
 제 4위의 이완을 유발하는 섬유소 부족과 배합사료 과급에 조심 하는 것이 중요.
- 치료 외과적 시술